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4 | 두류산 양단수들~,
요일월 순건곤은~, 대장부 공 이루고~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에는 시조가 세 편이나 묶여 있어서 갈래도 헛갈리고 주제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가), (나), (다)가 다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세 작품 모두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화자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란다. 시험에서도 이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돼.



특히 (나) 작품에서 '요일월 순건곤'은 옛날대로인데 '세상 인사'는 달랐다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연을 즐기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을 비판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나)의 화자는 자연을 즐기고 있다기보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해. 변함없는 자연(요일월 순건곤)과 변해 버린 인간 세상(세상 인사)을 '대조'하여, 자신이 꿈꾸던 태평성대가 사라진, 불우한 시대에 자신이 태어났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란다.



아, 대조를 통해 현실을 한탄하는 거군요! 그럼 (다)는 어떤가요? 중장이 엄청 길어서 읽기도 숨차고, 자연 속에 산다면서 '천금준마'나 '절대가인' 같은 걸 옆에 둔다는 게 좀 이상해서 해석이 어려워요.

정확하게 짚었구나. (다)는 사실시조의 특징인 수다스러운 열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빈낙도'가 아니라는 점이야. 소박한 삶이 아니라, 대장부가 공을 세운 뒤 누리는 풍요롭고 호사스러운 삶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이지.





아하, (다)는 소박한 선비의 삶이 아니었군요! 그럼 (가)는 무릉도원 이야기니까 그냥 자연이 좋다는 건가요? 세 작품을 어떻게 정리하면 시험 볼 때 안 헛갈릴까요?

그렇지. (가)는 두류산 양단수를 무릉도원과 동일시하며 자연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 거야. 정리하자면 (가)는 '자연 예찬', (나)는 '자연과 인간사의 대조를 통한 한탄', (다)는 '공을 이룬 후 물러난 삶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기억해 두면 어떤 비교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거야.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4 | 두류산 양단수를~,
요일월 순건곤은~, 대장부 공 이루고~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두류산(지리산) 양단수(두 갈래로 흐르는 물줄기)를 예 들고 이제 보니]([]: 말로만 들던 두류산 양단수를 직접 보고 있음.)

▶ 초장: 두류산 양단수를 봄.

도화(복숭아꽃. 탈속적 이상향으로, 종장의 '무릉'과 연결됨.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도화는 화자가 '무릉'을 연상하게 되는 매개체이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든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 중장: 두류산 양단수의 아름다움

아희아(아희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문답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무릉(화자가 마주한 공간을 무릉도원으로 여기고 있음.)이 어디오 나는 연가 하노라]([]: 영탄적 표현. 두류산 양단수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두류산 양단수를 이상적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 구절에 대해 묻는 문제에 '화자가 현재 머무는 공간인 두류산을 이상향인 '무릉'으로 여기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종장: 두류산 양단수를 무릉도원으로 여김.

- 조식

*산영: 산의 그림자.

(나)

[요(堯)일월 순(舜)건곤(요순시절은 태평성대를 의미함.)은 옛날대로 있건마는]([]: '요'와 '순' 시대의 자연은 여전히지만)

▶ 초장: 요순시절의 자연은 그대로임.

세상 인사는 어이 저리 달랐는고(여전한 요순시대와 달리 세상 인사는 달라짐. 설의적 표현으로 달라진 세상 인사에 대한 한탄을 드러냄.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함.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중장: 변함없는 자연과 달리 인세는 달라짐을 한탄함.

이 몸이 늦게 난 줄(이 몸이 늦게 태어난 것을, 즉 요순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을 못내 슬퍼하노라(영탄적 표현.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 종장: 불우한 시대에 태어남을 슬퍼함.

- 김천택

(다)

대장부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 초장: 대장부가 공을 이룬 후의 상황

[임천에 초당 짓고 만권 서책 옆에 쌓고 천금준마 술질하여 보라매 길들여 두고 노복 시켜 밭 갈리고 절대가인 옆에 두고 금준*의 술을 부어 벽오동 거문고 새 줄 엮어 무릎에 얹고 남풍시 화답하여 강구연월*에 누웠

으니]([]: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 화자가 임천에 초당을 짓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열거하여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 사회적 성취를 이룬 후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 의식주에 결핍 없이 충만함을 느끼고 있음. 사설시조의 특징인 중장의 장형화를 확인할 수 있음. **화자에 대해 묻는 문제에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선비의 안빈낙도(安貧樂道)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자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중장: 임천에 초당 짓고 순임금이 지은 남풍시를 노래하며 평화로운 세월을 보냄.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은 **이뿐인가 하노라**(영탄적 표현)

▶ 중장: 평화로운 삶에 대한 지극한 만족감
- 작자 미상

*금준: 금으로 만든 술통.

*강구연월: 변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 또는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 또는 태평한 세월.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4 | 두류산 양단수틀~,
요일월 순건곤은~, 대장부 공 이루고~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두류산 양단수틀 에 듣고 이제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 ㉡ 아히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연가 하노라

- 조식

*산영: 산의 그림자.

(나)

- 요(堯)일월 순(舜)건곤은 옛날대로 있건마는
- ㉢ 세상 인사는 어이 저리 달랐는고
- ㉣ 이 몸이 늦게 난 줄을 못내 슬퍼하노라

- 김천택

(다)

대장부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

- ㉤ 임천에 초당 짓고 만권 서책 옆에 쌓고 천금준
마 솔질하여 보라매 길들여 두고 노복 시켜 밭 갈리
고 절대가인 옆에 두고 금준*의 술을 부어 벽오동 거
문고 새 줄 엮어 무릎에 얹고 남풍시 화답하여 강구
연월*에 누웠으니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노
라

- 작자 미상

*금준: 금으로 만든 술통.

*강구연월: 변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
게 비치는 모습. 또는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
또는 태평한 세월.

- ④ (가), (나), (다)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
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여 말
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명승지로 알려진 '두류산 양단수'를 소문으
로만 듣다가 직접 보게 된 상황이다.
- ② ㉡: 화자가 현재 머무는 공간을 이상향인 '무릉'
으로 여기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변함없는 자연인 '요일월 순건곤'과 달리 가
변적인 인간사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다.
- ④ ㉣: 태평성대였던 요순시대에 태어나지 못하고
어지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을 표출하고 있다.
- ⑤ ㉤: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소박한 초가집
을 짓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선비의 안빈낙도(安
貧樂道)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이상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연 속에 거주하며 느끼는 만족
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을 주된 정서로 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가)의 화자는 두류산 양단수를 무릉도원이라 칭하며 자연 속에 있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고, (다)의 화자 또한 공을 이룬 뒤 임천(자연)에 물러나 풍류를 즐기며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자연 속에 거주하며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 (가)는 이미 화자가 지리산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므로 찾아가는 과정이라 보기 어렵고, (나)는 이상향을 찾아가는 내용이 아니다.

③ (나)는 현실에 대한 한탄과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지만, (다)는 은퇴 후의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노래하고 있어 부정적 현실 비판과는 거리가 멀다.

④ (나)는 옛날(요순시절)과 현재(세상 인사)를 대비하고 있다. (다)의 경우 공을 이룬 후 은퇴한 삶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서 과거(공을 이룬 삶)와 현재(은퇴한 삶)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확인할 수 없다.

⑤ (가)는 '아희'라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으나, (나)와 (다)에는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정답] ⑤

㉠에서 화자는 '천금준마', '노복', '절대가인', '금준' 등 값비싸고 호화로운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소박하고 가난함을 즐기는 '안빈낙도'나 '청빈'과는 거리가 멀며, 사회적 성취를 이룬 대장부가 누리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① ㉠은 '예 듣고(옛날에 듣고)', '이제 보니'라는 표현을 통해 소문으로만 듣던 명소를 직접 대면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② ㉡은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가 있는 곳을 이상향인 '무릉'과 동일시하고 있다.

③ ㉢은 '옛날대로 있는' 자연과 달리 '어이 저리 다른(달라진)' 세상 인사를 대조하며 변해버린 세태를 한탄하고 있다.

④ ㉣은 태평성대인 요순시절에 태어나지 못하고 늦게 태어난 '이 몸'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3. [정답] ④

(가)의 화자는 '도화 뜬 맑은 물'과 '신영'을 보며 감탄하고 무릉도원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다. (나)의 화자는 '요일월 순건곤(자연)'이 옛날대로 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변해버린 인간사를 한탄하고 있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세상일에 관심을 두고 부귀를 좇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가)의 종장에서 '무릉이 어디오 나는 연가 하노라'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② (나)의 초장과 종장에서 자연의 불변함과 인간사의 가변성을 대조한 것과 일치한다.

③ (다)의 초장에서 '공 이루고 물러난 뒤'라고 하였고, 종장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는 자연 그 자체와의 일체감을 중시하는 반면, (다)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술, 음악, 미인 등 구체적이고 현세적인 향락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4. [정답] ⑤

(가)의 주제는 자연(두류산)에 대한 예찬으로, 화자는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는 자연 속에 초가집을 짓고 청풍과 명월, 강산을 즐기며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려는 자연 친화의 태도와 삶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 주므로 (가)와 주제 의식 및 화자의 태도가 가장 유사하다.

① **[매력적인 오답]** 화자는 '청산'과 '녹수'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과 같이 자신도 섭리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자연에서 산다는 데서 ①이 (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제 의식과 화자의 태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② 호방한 기개와 무인의 기상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난하지만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겠다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임금(고운 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연군지정)을 노래하고 있다.

5. 정답 ②

(나)는 ‘요일월 순건곤’(변함없는 자연)과 ‘세상 인사’(변해버린 인간사)를 대조하여, 태평성대와 멀어진 현실에 대한 화자의 한탄이라는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객관적 상관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점층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반어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매력적인 오답]** 초장에서 경치를 묘사하고 중장과 종장에서 정서를 드러내는 구성으로 볼 수도 있으나, 초장의 내용은 단순한 경치 묘사라기보다는 ‘요순시절의 기운이 남아있는 자연’이라는 의미 부여가 강하므로 전형적인 선경후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와 그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6. 정답 ①

‘임천’은 화자가 벼슬에서 물러나 머무는 자연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의미한다. 반면 ②~⑤는 그 공간 안에서 화자가 즐기는 구체적인 풍류의 대상이나 소유물을 의미한다. 즉, ①은 배경이고 나머지는 향락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 ② ‘천금준마’는 좋은 말로, 화자의 부유함과 풍류를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③ ‘보라매’는 사냥매로, 사냥이라는 유희를 즐기 위한 소재이다.
- ④ ‘절대가인’은 미인으로, 화자의 곁에서 흥을 돋우는 존재이다.
- ⑤ ‘금준’은 금으로 만든 술통으로, 풍요로운 음주 생활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7. 정답 ③

(다)는 대장부가 공을 세우고 물러난 뒤 임천(자연)에서 누리는 삶을 다루고 있다. 중장에서 ‘만권 서책’, ‘천금준마’, ‘보라매’, ‘절대가인’, ‘금준’ 등 화자가 향유하는 대상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족함 없는 삶에 대한 충만감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매력적인 오답]** 화자가 즐기는 소재들(천금준마, 금준 등)은 호사스럽고 풍요로운 것이므로 가난

한 선비의 소박한 삶으로 보기 어렵다.

- ② 화자는 ‘강구연월’(태평한 세월)에 누워 즐거워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거나 세속과 단절하려는 의도보다는,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데 초점이 있다.
- ④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공 이루고’라는 구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임금의 부름을 기다리는 연군지정이나 우국지정과는 거리가 멀고, 개인적인 풍류와 만족감이 주된 정서이다.